JDI 제23회 제주미래포럼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

○ 일　　시 : 2015년 7월 7일(화) 15:00~17:3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
○ 주최・주관 : 제주발전연구원

JDI 제주발전연구원
Jeju Development Institute

□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개회식	15:00~15:10	사 회 : **정승훈**(제주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장) · 개회사 :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 축 사 :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발표	15:10~16:10	좌 장 : **김수열**(시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발표 1.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 **정정숙**(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2. 문화예술의 섬 조성 방안 : 해외사례 중심 **김해곤**(섬아트문화연구소 소장) · 발표 3. 문화예술의 섬 조성 방안 : 국내사례 중심 **이명희**(동서대학교 교수) · 발표 4. 문화예술의 섬 조성 방안 : 예술인의 역할 **김수열**(시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발표 5. 문화예술의 섬 조성 방안 : 행정의 역할 **이중환**(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 발표 6. 문화예술의 섬 조성 방안 : 연구방향과 방법 **문순덕**(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휴식	16:10~16:30	휴식
종합토론	16:30~17:30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방향과 전략 모색 좌 장 : **김수열**(시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정정숙**(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김해곤**(섬문화연구소 소장) · **이명희**(동서대학교 교수) · **이중환**(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 **문순덕**(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폐회	17:30	폐회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최근 우리사회를 뒤흔든 메르스 사태도 다행히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여,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정기적으로 제주미래포럼을 운영하면서 제주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제주에 문화예술이 살아 숨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제주도정이 역점을 두고 있는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실현을 위해 실천 가능한 방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복지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간·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지역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오늘 포럼을 통해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가능성을 다각도로 점검해 보고,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주 문화예술의 섬'을 조성하는 데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포럼에서 제시된 귀중한

의견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대한 도민 인식이 확산되고, 제주의 문화진흥 정책 방향을 찾아보고, 제주 문화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좌장을 맡으신 김수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과 발표를 해 주시는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님, 김해곤 섬아트문화연구소 소장님, 이명희 동서대학교 교수님,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7일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강 기 춘**

목 차

• **발표 1.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

정 정 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7

• **발표 2. 제주에 예술섬은 필요한가?**

김 해 곤 (섬아트문화연구소 소장) ·····15

• **발표 3. 창조주민에 의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감천문화마을**

이 명 희 (동서대학교 교수) ·····23

• **발표 4.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 방안 : 예술인의 역할**

김 수 열 (시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31

• **발표 5.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 방안 : 행정의 역할**

이 중 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37

• **발표 6.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논의 방향**

문 순 덕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45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방향

정 정 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연구위원

1. 정부는 왜 문화예술을 중시하는가?

지구촌의 모든 국가는 문화예술의 가치 구현하기라는 시대적 과제 수행에 앞을 다툰다. 한 때 사치재로 인식되던 '문화예술'이라는 개념도 편협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정설이 되어가고 있다. 일례로 공여국의 지원으로 생존을 보장받고 있는 최빈곤국조차도 자국의 예술과 생활양식의 결정체인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박물관 설립을 추구하고 있다.

단순히 위정자들의 자기 통치 시기의 업적용이나 국가정체성 강화를 통한 체제경쟁형 정책의지의 발현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얼마든지 다른 공공 인프라의 설립이나 상징체계의 확산으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체성 강화만 하더라도 교육헌장이나 제복 등 다른 선택할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문화를 다루는 정부 간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는 현대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체로서의 국제기구인 유엔보다도 가입국이 더 많다. 그 정도로 문화에 대한 각 정부들의 관심은 높고,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한때 문화재정과 문화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화경제학자들의 논거를 생산해내기도 했다. 국가상징적 효과, 경제적 효과, 부수적인 지역후광효과, 미래 세대의 전통계승과 교육효과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들은 문화예술 밖에 서 있는 타인들, 타 부처들을 객관적으로 설득시키기 위한 논리였을 뿐, 문화예술 내부에서 체험하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프랑크푸르트학파가 문화산업을 보았던 시선이나 마르크스가 종교를 비판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시선과 같이 문화산업이나 문화예술은 정부의 이익에 복무하고,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자본주의 민간 기업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수단적 가치로서, 실제로는 현실을 망각하게 하는 최면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문화예술의 참여와 향유는 결과적으로 자신을 비롯한 타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미적 감각을 발달시키는 등 다각적인 과정을 통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가져오고, 인간과 삶의 중심을 점진적으로 혹은 급격하게 재편하게 하는 힘을 보여준다. 문화예술의 힘은 순간적인 고양된 이해와 감동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과 의지와 정신과 정서에 대한 경외, 한 인간의 눈물과 슬픔과 기쁨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공유적 마인드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공유성은 연대를 거쳐 동심원처럼 퍼져나간다. 하나의 예술작품에 문화할인율과 관계없이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그러한 실증적인 예라고 하겠다.

만일, 국가와 개인이 관계 맺기에서 자국과 자기 자신의 현실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본능적인 약육강식의 행태 이외의 인권, 문화권, 인류애, 인류의 공동자산, 문화다양성 등의 가치들은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은 인류애, 인류의 공동자산인 문화유산의 보존, 궁극적으로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확산시키는 이상적 기능을 추구하고 선도해야 할 역할을 부여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 실용적으로는 국내의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청소년과 소외계층의 정신적 갈등과 정서적 피폐함을 막기 위한 예방적・창의적・생산적 복지정책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 문화계에서는 흔들릴 수 없는 가치 명제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은 단순히 예술가 개인들의 자율적인 생산활동의 총합으로서의 현상이 아니라, 국가들의 정책의지가 적극적인 비전과 함께 개입되어야 하는 정책분야이기도 하다.

한편, 의식적으로 정책을 통해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향유하기를 촉구하는 것은 복지국가 개념을 들먹이지 않고라도, 국가와 국가,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간 상호 관계 및 자기성찰 속에서 문화예술 표현의 역량과 역사가 상호 교류되고

비교되는 가운데, 그 다양성에 자극을 받으며, 각자 좀 더 새롭고, 발전된 상태를 지향하는 욕구와 그 긍정적인 역사에 가치를 부여하는 정부의 유일한 역할일지도 모른다. 발전에 대한 지향은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현재 상태에 멈추게 하지 않고, 좀 더 위를 향하여, 좀 더 깊은 곳을 향하여, 좀 더 넓게 나아가게 한다. 이러한 이상향 혹은 비전에 대한 지향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개인과 사회와 국가는 선사 시대 이래로 인간이 자초한 실패나 자연으로부터 닥쳐온 도전들과 고통들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파베르를 거쳐 호모 루덴스를 향해가는 것은 어쩌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진화해가는 인간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관점이 독점하거나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 모든 관점이 통합되는 사회, 결국은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이분법적 관점이 통합되어 양축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2. 우리 정부는 어떠한 문화예술정책을 지향하고 있는가?

2014년에는 2013년에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의거하여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 안에서 정부별 문화정책 기조 및 과제를 평가하고 있다. 그 추이를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는 조직과 정책기조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아래의 표 두 개는 2014년에 수립된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부별 정책성과와 한계 및 정부별 정책기조이다.[1)]

1) , 2014,『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체육관광부

<표> 정부별 정책 성과와 한계

추진정부	성 과	한 계
박정희정부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법, 제도구** ● **민족문화 창달/** 문화기반시설 확충	● 문화공보행정 위주/문화재 보존 · 복원 정책 치중 ● 문화예술 표현의 제약과 규제중심의 문화정책
전두환정부	● 문화기반시설 확충/한국문화의 해외교류	● **검열, 통제 위주의 문화예술정책** ● 문화재 보수 위주의 문화행정
노태우정부	● 문화부 독립 ● 문화예술정책의 자율성 신장 및 탈권위 · 탈관료화 ● 국민의 문화향수권 증진, 남북문화교류 추진	● 문화예술인의 참여 부족 ● 순수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 ● 문화정책의 외연 협소
김영삼정부	● 문화산업정책 발전 체계 구축 ● 기업메세나 정착 ●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및 역사 바로세우기	● 공급자 중심의 정책 추진 ● **IMF관리체제로 문화예술경영 위축** ● 문화의 세계화는 구호에 그침
김대중정부	● **문화예산 1% 편성** ● 남북한 문화교류협력 ● 문화검열제도 폐지 및 일본대중문화 개방	● 문화산업 위주의 정책 기조 ● IMF 이후 하락된 문화향수 회복 지연 ●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문화예술계 구조조정
노무현정부	● **문화분권, 자율, 참여 등 문화행정 혁신** ● 지역문화균형 발전/ 문화예술정책 패러다임 변화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민간자금화 ● 문화정책 영역확대 한계
이명박정부	● **국가대표문화시설 건립** ● 한류의 세계화	● 남북문화교류 단절 ● **문화진흥 중장기 계획 부재**

이 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정부별 정책이 점진적으로 자율, 참여 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음과 동시에 경제적 위기 등과 연동될 수 있다는 것과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국가브랜드는 통합적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문화예술진흥원이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예술이 진흥되어가면서, 예술의 전당과 같은 대표적인 문화예술시설이 건립되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되어 문화적 활동이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 생활공감형 문화정책으로 문화민주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표> 정부별 문화정책 기조 및 과제

	박정희 정부 (~1979)	전두환 정부 (1980~ 1987)	노태우 정부 (1988~ 1993)	문민 정부 (1993~ 1998)	국민 정부 (1998~ 2003)	참여 정부 (2003~ 2008)	이명박 정부 (2008~ 2013)
조직	문화공보부	문화공보부	문화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조	건전 자주적인 정신문화의 계발	문화창달	복지문화의 틀 화합문화의 틀 민족문화의 틀 개방문화의 틀 통일문화의 틀	곁에 있고 함께 하는 문화, 누구나 즐기고 신명나는 문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자율, 참여, 분권의 열린 문화행정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정책과제	–민족문화의 진흥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 –문화예술제도 및 법제화 기반 마련 –문화시설 확충 –박물관 등 문화시설 확충 –민족문화창달	–문화적 주체성 확립 –문화적 혜택의 복지적 분배 –창조적 문화 역량 제고 –문화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각종 문화시설의 사회교육 역할 제고	–문화주의 시대의 개막 –민족문화의 창달 –국민문화향수권 및 참여권의 신장 –문화운동의 전략화 추진 –문화창조력과 문화역량의 제고 –국제문화교류와 통일문화 기반조성	–민족정기의 확립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복지의 균점화 –문화창조력 제고와 문화환경 개선 –문화산업의 개발과 기업문화 활성화 지원 –한겨레문화의 조성과 우리 문화의 세계화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 –지식정보사회 기반 조성 –창조적 예술활동 여건 조성 –문화유산의 보호, 계승, 발전 –문화산업의 발전체계 구축 –문화를 통한 민족통합 지향	–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문화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화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 협력 증진 –문화행정조직 개편 및 혁신체계 구축	–문화지원의 선택과 집중 –생활 공감 문화정책 –문화나 예술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수한 가치를 확대하고 작품의 질을 높임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과 정신이 새로운 가치로 성장하고 확대되는 정책 –5대 콘텐츠 강국을 위한 도약
성과	–**문화예술 진흥원 설립** –문화예술 진흥법 제정 –문화의날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시설 건립	–문화기반 시설 대폭 조성 –국가주도문화 행사의 민간 이양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 –박물관및미술관법 제정 –**예술의전당 건립** –독립기념관 건립	–기업메세나 활성화 –문화산업국 신설 –민족문화 바로 세우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정** –문화도시조성 –문화예산의 증액	–**문화예술 위원회 독립**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 –문화예술교육의 본격화	–국가대표 문화공간 건립 –예술인 복지법 제정 –**생활 공감형 문화정책** –예술 지원체계 개선

<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관련 정책기조의 추이

	전체비전	문화예술정책 기조 /국제문화교류 기조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2010	더 큰 문화국가, 품격 있는 대한민국	문화향유기반 확대 /우리문화의 위상제고	국가상징문화공간조성, 창의적문화환경조성, 예술의 창조역량 강화, 계층지역간 문화불균형해소 / 문화정체성 확립 및 시민의식 함양,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G20 대비 문화 교류 전략
2011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향유, 지역문화, 미래지향 역량 /문화한국의 브랜드화	소외계층, 생활문화, 문화나눔, 전통문화자원, 창의적 문화공간, 문화예술교육 / 해외홍보 인프라 확충 및 교류 확대,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
2012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문화가 펼쳐지는 나라 /세계 속의 문화강국 위상제고	전통문화와 정신의 현대적 변용 및 창조적 활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향유기회 확대 / 국가 대표 문화 공간 조성, 주요 국제행사 계기 국가이미지 제고, 전략적 해외진출 강화,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
2013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문화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문화재정 2%, 장애인문화향유, 생활문화공간, 예술인의 창작안전망, 문화유산관리체계, 인문정신문화 /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한류3.0 실현,문화교류 ·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진행체계 구축, 다문화 시대의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남북한 문화 · 체육 · 관광 교류로 신뢰 기반 구축
2014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환경,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쌍방향국제교류강화	문화향유, 인문정신문화확대, 생활 속 문화기반, 문화예술 창작 유통여건개선, 문화예술교육, 민족문화창조적 계승 / K-Culture로 신한류 창출
2015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 실현	문화콘텐츠창조역량 강화, 생활속 문화 확산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선순환 예술창작생태계조성, 창조적 문화인력양성, 생활지역속 문화일상화, 다양한 문화공간조성, 인문정신과 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구현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국민 자긍심 고취, 한류를 통한 문화영토 확대

한편 최근의 문화예술정책은 '국민들의 행복'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달성 혹은 제공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는 경지에 다다르고 있으면서도 2015년 중점과제의 상당부분은 국가브랜드의 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국민과 국가산업의 우산으로서의 국가이미지나 국가브랜드의 강화는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이러한 두 축의 정책 구조는 상호지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예술정책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요즘 우리는 문화예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 음악이 없거나, 회화작품이 없거나, 영화나 드라마가 없거나, 시가 없거나, 춤이 없다면 어떻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만큼 문화예술은 인간의 본원적인 활동 혹은 생각을 나누고 결집해가는 공생과 관계의 지속을 통해 정신적 풍요를 누리게 하는 활동으로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데카르트(Descartes, René)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Je pense, donc je suis: cogito ergo sum)'라는 명제는 모든 주어진 관념들의 명증성에 대해 의심을 한다하더라도, 의심을 하는 자신의 존재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 데카르트의 생각을 표현하는 자유의 결정체가 문화예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느 한 존재도 예외 없이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향유한다. 그 문화예술의 창조성이 공공성을 띤 지명도가 있는 것인가 혹은 사적 성격을 띤 개인적인 레벨에서 만족을 주는 창조적인 것인가의 구분은 가능할 것이다.[2]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가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를 지향한다면, 문화 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를 의미한다. 고급문화는 구별과 배제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문화는 일상적인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강조가 나타나기도 했었다. 보통사람들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술을 감상하는 방법을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술을 만들어보도록 격려된다. 문화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서, 상향적이고 자발적 방식이다. 모든 사람은 창조적 소양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3]

그래서 생활문화가 중시되어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탁월성을 추구하는 도전정신은 사라질 수 없다. 미국의 NEA가 국가 수준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은 두가지의 큰 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탁월성과 공동체성이다. 그들은 미국 예술

2) Howard Gardner 'Frames of Mind(1983)'에서 두가지 타입(Big, Small)의 창조성을 언급하였음. Cohen, Gene D.는 Howard Gardner의 생각을 발전시켜 "The Impact of Professionally Conducted Cultural Programs on the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and Social Functioning of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46, no. 6 (2006): 726-734.에서 공적인 창조성은 공동체에 의해서 지명도가 확보된 창조성이며, 사적인 창조성은 뭔가 새로운 관점, 생각, 아이디어 등을 의미한다고 구분함.

3) 서순복, 2007,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책적 함의」,『한국지방자치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8권 3호, pp.23~44 참조

가의 탁월한 창작성이 곧 전 세계의 창작성을 대변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축은 공동체성으로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루어내는 창작 작업이나 창작 동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제 예술은 예술가의 창작을 거쳐 국민에게 다다르고, 또한 국민의 생활문화가 다시 예술가의 창작의 소재가 될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문화가 예술이 되기도 하고, 예술가의 창작의 결과물이 국민의 생활문화를 자극하거나, 국민을 풍요롭게 만드는 창작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혼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게다가 예술가와 국민은 국가브랜드의 향유자임과 동시에 생산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의 문화예술정책은 국가와 국민, 국민과 예술가의 어느 한편에 편중됨이 없이 국민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민과 예술가의 수요에 자극을 주는 국제사회의 호명에도 민감하게 대응하는 기획력과 수행력을 발휘할 것이 요청되는 지점에 서 있다.

제주에 예술섬은 필요한가?

김 해 곤
섬아트문화연구소장

문화는 소중한 자산이다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은 과거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지난날의 관심이 의식주에 머물러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문화예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또한 만만찮다. 문화를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명하다. 사람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기존 산업의 그것에 뒤지지 않거나 오히려 앞서기 때문이다. 좋은 예술품은 시대를 구분하지 않는 자원이자 중요한 재원이다. 때로는, 예술작품 하나와 저명한 예술가 한 명이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기도 한다.

한국은 오래 전부터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려왔다. 여러 예술가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그 결과는 실로 괄목할 만하다. 한류 열풍은 그중 두드러지는 결실이라 하겠다. 정부는 현재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정 역시 다르지 않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젝트는 제주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려는 시도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지향하면서, 그 일환으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섬'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예술섬 조성 사업은 제주 미래의 자원이자 재원이 될 것이다. 나아가 관광 패러다임까지 새롭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예술섬을 조성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제주도는 이 부문에서 경쟁력이 상당하다. 타 국가의 대상 지역들에 비해 자연환경이 뛰어날 뿐 아니라 문화적 콘텐츠

들이 다양하고 독특하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제주도가 모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해외 지역의 문화예술 조성 사례로는 일본의 나오시마 및 세토우치국제예술제, 캐나다 포고 섬, 영국령 채널 제도(The Channel Islands), 비록 예술섬은 아니지만 30여 년간 문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영국의 게이츠헤드 등을 꼽을 수 있다.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나오시마는 버려진 섬이었다. 본디 나오시마가 포함된 세토우치(세토나이카이의 연안 지역과 주변 섬들) 지역은 일본에서 최초로 국립공원에 지정될 만큼 경관이 뛰어난 곳. 1917년 한 섬에 제련소가 생기면서부터는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졌다.

그러나 해운업과 제련업의 쇠퇴와 함께 공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됐고 환경오염 문제까지 겹치며 세토우치는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한센병 환자의 강제 수용소로 인식돼 섬이 소외되는 등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아픔을 겪기도 했다. 때문에 젊은 층이 하나둘씩 지역을 떠났고, 그 여파로 인구 감소와 지역주민들의 고령화로 섬 자체가 활기를 잃고 지역의 정체성마저 잃어가는 국면에 이르렀다. 나오시마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때 주민 인구가 3400여 명까지 줄어들었다.

이 버려진 섬이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 최고의 예술섬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베네세하우스라는 독특한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더불어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섬 곳곳에 채워지면서 인간과 예술과 자연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섬이자 현대예술의 낙원이 됐다.

나오시마가 이처럼 변화하게 된 배경에는 후쿠다케 데쓰히코라는 경영인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후쿠다케 회장은 학습지 '빨간펜'의 모체인 ㈜베네세홀딩스 그룹의 창업자로 "경제는 문화의 충실한 하인"이라는 철학의 소유자. 후쿠다케 회장은 "아름다운 섬을 망친 주범은 바로 어른들"이라며 "어린이들을 위한 지상낙원으로 만들어 돌려주자"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했다.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에는 아들 후쿠다케 소이치로가 사업을 이어받게 됐다.

후쿠다케 소이치로 회장은 세계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함께 1992년 박물관과 호텔을 겸한 베네세하우스를 오픈했다. 2004년에는 지추미술관(모네, 월터 드 마리아, 제임스 터렐의 작품이 영구적으로 전시되도록 설계돼 있다), 2010년에는 한국 작가인 이우환미술관을 추가로 조성했다. 빈집프로젝트라는 독특한 콘셉트의 문화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후쿠다케 소이치로 회장은 "30년 후 예술이 자원이 되어 이 섬을 먹여 살릴 것"이라고 단언한다.

역시 후쿠다케 회장이 진행시키고 있는 세토우치국제예술제 역시 주목할 만하다. 세토우치국제예술제는 세토 내해의 섬들을 무대로 펼쳐지는 현대예술 축제. 세토 내해를 배를 타고 돌아보며 자연 속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새로운 스타일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2010년 세토나이카이 7곳에서 열렸던 제1회 예술제에 이어 2013년의 제2회 예술제는 주변 14개 지역(나오시마를 비롯해 다카미지마, 데시마, 이부키지마, 메기지마, 오시마, 오기지마, 샤미지마, 쇼도시마, 이누지마, 혼지마, 아와시마, 다카마쓰 항, 우노 항 등)에서 확대 시행돼 한해 관람객이 100만 명을 넘겼다. 예술제의 1인당 입장료는 4,000엔. 이 수입은 고스란히 지역에 흡수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일본 미래의 자산이 되고 있다.

포고 섬(Fogo Island)은 캐나다 북동쪽 뉴펀들랜드 해안에 위치한 섬. 원래는 주민들이 어업을 중심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곳이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예술프로젝트로 섬의 경제적 문화적 양상이 급속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포고 섬의 예술프로젝트는 크게 레지던시, 전시, 출판, 포고 섬 다이얼로그(Fogo Island Dialogues), 영화, 디자인, 교육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포고 섬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지난 2010년부터 매해 평균 10명 이상의 작가들을 세계 각지에서 초대해왔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들은 지속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완성된 작품들은 포고 섬 갤러리(Fogo Island Gallery)에 전시됐다. 독일의 스텐베르그 출판사와 연계해 작품집이 출판되기도 했다.

포고 섬 프로젝트는 단순히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아트를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도 성과를 내고 있다. 2015년 여름부터 포고 섬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인 플라카 할리티(Flaka Haliti)가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코소보 파빌리온에서 대표작가로 선정된 것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포고 섬 예술 프로젝트는 포고 섬 다이얼로그를 통해 미술과 더불어 생태 · 환경을 포함하는 다양한 담론과의 연계도 모색하고 있다. 포고 섬 다이얼로그는 국제적 컨퍼런스로, 주요 사상가, 미술대학 교수, 연구자, 경제학자, 지리학자, 기획자, 건축가들이 모여 소외 지역의 생계와 재생과 관련한 이슈들을 토론하는 자리. 단순히 포고 섬 자체의 활성화만이 아니라 예술과 사회의 관계, 지역문화 재생의 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예술이 지닌 포괄적 역할을 고민한다.(2013년 한 차례 개최됨)

포고 섬 예술 프로젝트는 지역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특히 재단에서 운영하는 포고 섬 호텔(Fogo Island Inn)은 지역 콘텐츠를 실내 인테리어로 승화시켜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지역적 콘텐츠를 생산하는 중심 공간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호텔은 지역 주민들과 디자이너, 예술가와 함께 만든 디자인 가구나 포고 섬 특유의 벽지 무늬들을 수합해 실내 디자인에 활용했다. 지역 콘텐츠를 발굴하고 상품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호텔 내 영화관에서는 전 세계의 영화뿐만 아니라 포고 섬에서 이루어지는 영화 제작 워크숍의 결과물을 상영하기도 한다. 포고 섬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화 제작 강좌가 개설돼 있으며, 성인들을 위한 영화 제작 워크숍 등도 진행되고 있다.(1)

채널 제도는 영국해협에서 30km 떨어진 곳의 영국령 섬들이다. 저지(Jersey), 건지(Guernsey), 올더니(Alderney)를 비롯한 여러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국령이지만 독자적인 정부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예술과 섬 재단(Art and Islands Foundation) 주관으로 예술섬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1996년 건지 대학(Guernsey College)의 예술과 디자인 분야 학생들에게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것에서 출발해,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공 영역에서 예술 활동을 시작했다. 섬 곳곳에 앤서니 곰리(Antony Gormley)나 앤디 골드

워시(Andy Goldsworthy)의 작품을 포함한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설치돼 있으며, 코넬리아 파커(Cornelia Parker), 차이궈창(Cai Guo-Qiang) 등의 작품이 설치될 예정이다. (2)

영국 동북부에 위치한 **게이츠헤드**는 타인 강을 사이에 두고 뉴캐슬과 마주하고 있는 인구 20만여 명의 작은 도시다. 한때 부유한 광산촌이었으나, 1970년대 산업구조의 변화(정부의 광산폐쇄정책)로 광산이 문을 닫은 뒤부터 주민들의 실업률이 20%를 웃돌며 황폐해졌다.

게이츠헤드 市는 쇠락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다가 1990년대 도시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 문화재생을 선택하게 된다. 가장 큰 계기는 1990년 개최한 국제가든페스티벌이었다. 이후 그 동안 추진해오던 공공예술프로젝트와 안토니 곰리의 "북쪽의 천사(Angel of North)" 조형물 설치가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면서 게이츠헤드는 급속도로 변화의 국면을 맞게 된다.

특히 "북쪽의 천사"는 쇠락한 게이츠헤드를 예술도시로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높이 20m, 너비 54m, 무게 200여 톤의 이 거대한 검은 갈색 조형물은 저절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임팩트가 강하다.

물론 추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게이츠헤드 시가 조형물을 설치하려 할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빗발쳤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예술품 대신 병원과 학교를 지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결국 "북쪽의 천사"가 설치되면서 게이츠헤드 시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

타인 강변에 위치한 **발틱현대미술관**은 3,000평방미터 규모의 현대미술 전문 갤러리다. 1980년대 문을 닫은 뒤 철거비용이 없어서 방치해오던 전분 공장을 리모델링해 2002년에 문을 열었다. 이 미술관은 개관 이후 유수한 미술작품 전시로 지역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키고 있다. 그것과 함께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술관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개관 후에도 시민을 위한 문화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미술관 내에는 다섯 개의 갤러리와 교육관, 아트숍, 카페 등이 있다.

발틱현대미술관 옆에는 세이지음악당이 자리하고 있다. 다슬기 모양과 유사한

이 음악당 건물은 건축가 로먼 포스터가 설계한 것으로 타인 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타인 강에 비친 야경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음악당의 내부에는 1,700여 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400여 석 규모의 소공연장이 있으며, 그밖에 연습실, 세미나실, 교육장, 카페 등이 있다. 이 음악당도 설계 당시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예술교육프로그램 또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게이츠헤드와 뉴캐슬은 126미터의 밀레니엄 다리로 연결돼 있다. 타인 강 위에 놓인 이 거대한 건축물은 배가 지나가거나 요트 대회 등이 열릴 때 다리 상판이 접어지게 설계돼 있어 일명 '윙크하는 다리'로도 유명하다. 보행자와 자전거만 다니도록 설계됐으며, 야간 조명으로 아름다움을 한껏 연출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게이츠헤드 시의 문화재생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추진은, 도시의 쇠퇴를 막고 심각한 실업률을 해소하며 세계적인 예술도시로 성공시킨 원동력이 됐다. 추진 당시 주민의 커뮤니티를 존중하고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은 특히 되새겨볼 만하다.

더불어 막대한 경제효과까지 누리고 있다. "2012년에 방문객 190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역에 연간 4억 파운드(약 7,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MK뉴스', 2014.1.1.) 게이츠헤드 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매년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면서 세계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해가고 있다.

1988년에 문화도시를 준비했던 게이츠헤드 시는 올해로 28년째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3)

제주는 꿈꾸는 예술섬이 될 수 있을까

제주의 자연은 아름답다.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고 싶은 명승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연환경 외에 인간이 만든 예술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제주도민들에게는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고 문화적 자긍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치 않은 것이다. 제주의 예술적 랜드마크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

나오시마는 버려진 섬에 예술이라는 옷을 입혀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7대 섬"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 곳이 됐다. 현대적 예술 낙원이 된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7,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 후쿠다케 회장은 앞으로도 30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미래를 위한 자원이자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게이츠헤드 시에서는 1988년 공공예술프로젝트, 1990년 국제가든페스티벌, 1994년 "북쪽의 천사" 조형물 설치, 2002년 발틱현대미술관 개관, 2004년 세이지 음악당 오픈, 2008년 레저시설 개발 등 일련의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30여 년간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 곳에 30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다. 예산문제보다는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마인드 부재, 추진주체의 추진력 부족, 주민들의 이해도 등이 이유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좋은 선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예술섬을 실현시킬 장기플랜을 30년 이상 실행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마련되어 머지않은 미래에 제주도가 예술낙원이 되길 기대한다.

⑴ 참조: http://fogoislandarts.ca/ http://www.fogoislandinn.ca/fii/

⑵ 참조: http://www.artandislands.org/

⑶ 아트인컬쳐(에이엠아트). 2015. pp.132~137. 김해곤 글 발췌

창조주민에 의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감천문화마을

이 명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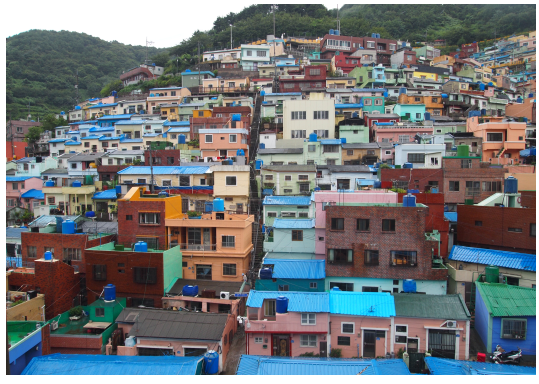
동서대학교 교수, 감천문화마을 계획가

1. 감천문화마을의 지역 환경 및 자원 - 지역적 특징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은 질서정연하고 다양한 색상의 주택 경관이 특색으로, 산비탈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뒷집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건축과 가로형 골목길은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근대적 생활환경에 대한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 '생활환경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태극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그들의 신앙촌을 만든 것은 부산으로 피난 온 전국의 신자들이 교주를 중심으로 하여 모여든 6·25전쟁 기간 동안의 일이다. 1955년 7월부터 짓기 시작한 기름종이로 만든 판자집으로 1977년까지 23년간을 생활하다가 당국의 승인 하에 1977년부터 스레트집으로 자체 개량을 하였고 80년대에 형편에 따라 스라브집으로 자체 증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감천2동 일대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는 민족 문화의 원형과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마을이며 한국전쟁이 나은 근대사의 삶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경사지를 이용한 남향의 집단주거 형태는 부산만의 독특한 장소성을 보여준다.

지역고유의 경관을 가진 전통적 가로경관은 역사의 증인이자 문화적인 안식처로서 주택 하나하나 보다는 그것들이 집단으로 만들어내는 경치가 개성 있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특히 규칙적으로 밀집하여 가로축을 형성하며 만들어낸 골목길은 오픈스페이스이며 커뮤니케이션의 장소가 되어 생활의 장이 된다.

한때 30,000여명에 이르던 인구가 2014년 기준 9,000여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빈집이 300여 채가 넘을 정도로 마을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와 함께 다수의 주민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도시빈민촌이다.

2. 보존과 재생의 생활 친화적인 마을 - 조성 목적 및 방법

감천문화마을 조성 목적은 산복도로변에 형성된 특색 있는 주거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생활과 연계되면서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민 체험형 창조공간으로 개발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문화, 관광 명품지역으로 가꾸는 것에 있다.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 소외지역인 사하구 감천2동의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살고 싶은 공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삶과 일상의 체험을 제공 한다.

비탈진 경사지에 계단식으로 질서정연하게 나열된 마을의 주거형태와 색채의 독특함으로 마을의 아름다운 전경과 부산의 역사가 녹아있다. 사통팔달 골목길의 특성을 살려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보존과 재생'이라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문화서비스를 통한 창조적 커뮤니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2009년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을 계기로 감천2동에 조형물로 대변된 문화콘텐츠가 조성되어 많은 관심이 쏟아졌고, '문화마을 운영위원회'에서 2010년 콘

텐츠 융합형 공모사업을 배경으로 〈주민 생활기반 개선〉과 함께 다양한 〈문화콘텐츠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 관광 명품지역으로 가꾸어 가고 있다.

3. 문화예술 서비스 - 주요 구성내용(지역자원 활용, 문화콘텐츠 이식 등)

3.1 아트팩토리인다대포(창작스튜디오)의 역할

문화예술 공동체 〈아트팩토리인다대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 · 장림 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재생업체에서 화장품 용기제조공장, 기계 부품공장 등으로 쓰이기도 했던 공장을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들의 작업공간과 숙소로 제공하여 2007년 11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아트팩토리인다대포는 작가를 위한 창작스튜디오가 중심이 되어 생성하고 순환시키고자 하는 문화예술 서비스는 이 지역의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실현 주체로 참여할 수 있고 지역만의 특성 있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생성하는 것이다. 아트팩토리인다대포는 감천문화마을에게 문화예술 서비스의 창조공간과 창조계급 역할을 하였다.

2009년 마을에서 처음 시행된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아트팩토리인다대포 운영위원회에서 기획하여 마을 입구의 대로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이어서 2010년에는 마을의 지형적 특징을 살린 '미로미로(美路迷路) 골목길 프로젝트' 등 2015년 현재까지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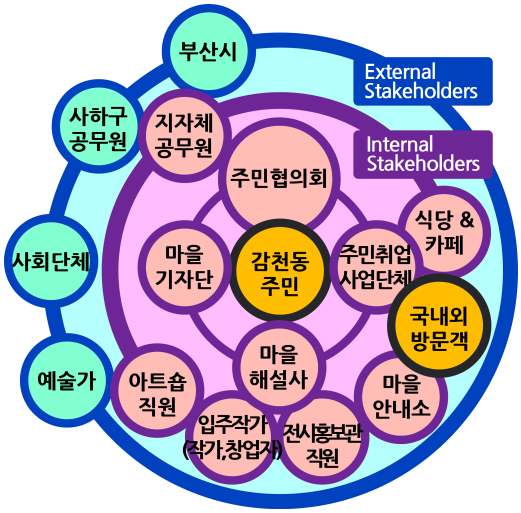
3.2 연결통로이자 소통공간으로서의 골목길 프로젝트

수직으로 좁고 가파른 계단 길은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힘겨운 삶의 진리며, 가로로 길게 늘어선 골목길은 옆집과 소통하는 주민들 소통의 길이다. 또한 미로와 같은 골목길은 마을 특유의 횡적 구조와 함께 대부분 막힘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자는 어느 길을 들어서도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주민들과 방문자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할 것이다.

3.3 테마가 있는 빈집 프로젝트

감천2동은 태극형태 골짜기, 가파른 언덕에 계단식으로 형성되어 질서정연한 집단주택의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 주민이 직접 작은 주택들을 단장하여 매우 화려한 환경색채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마을 조성은 산복도로변에 형성된 특색 있는 주거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생활과 연계되면서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체험형 창조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계단식 산복도로에 산재한 빈집 중 바다와 연계된 조망이 좋은 위치의 빈집을 활용하여 예술 창작스튜디오 및 작품전시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4. 창조적 커뮤니티와 이해관계자 - 지자체의 역할



▶ 이해관계자 맵

창조적 커뮤니티의 특징은 무엇일까? 창조성은 어떤 일정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특정의 계기와 상황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들은 동시대인들을 따라오게 하면서 서로 모방하고 경쟁하여 새로운 시대 흐름을 만들어냈다. 또한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충돌함으로써 새로운 창조적 영감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충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융합이 있었다. 창조적 예술품들을 만든 사람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눈도 중요하다. 이 둘의 조화, 이것이 바로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탄생한 이유이다.[1)]

감천문화마을의 이해관계자는 주민협의회, 지역주민, 작가, 전시홍보관·아트숍 직원, 카페·식당 운영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외부 방문자 등이 있다.

1) SBS , 천재들의 도시 피렌체, SBS스페셜 284회(2012.04.01), 285회(2012.04.08)

문화마을에서 제공되는 문화서비스는 이 지역의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실현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첫 번째, 방문자그룹으로 국내외 관광객으로서 경관 사진촬영이 목적인 사람들을 비롯해서 마을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즐기면서 문화적 체험과 함께 근대문화의 향수를 향유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체험으로 부산의 문화를 알리는 살아있는 홍보자가 된다.

두 번째, 주민그룹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다수의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인 주민들은 체험형 문화서비스에 참여함으로서 일상생활을 풍부하게 함은 물론 직접 제작한 문화상품이나 마을 특산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운영협의회는 감천문화마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제2의 문화서비스 생성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주민과 방문객 중심의 문화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의 지원자가 된다.

세 번째, 창조그룹은 마을에 거주하거나 외부 창조전문가로서 문화서비스 생성자가 된다. 개인작품의 제작 및 전시와 함께 창조적 교육프로그램이나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의 문화서비스 주체가 된다. 또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주민들이 창조그룹이 되기도 한다.

네 번째, 행정 그룹은 마을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시군구정부로 마을의 창조적 활동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업무와 경제적 지원을 한다.

5. 지속가능한 창조적 문화마을 만들기 - 예산 및 장점과 단점

감천문화마을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2009 마을미술프로젝트〉의 예산은 국비 1억원(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부산광역시의 정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1차적으로 2011년에 시비 8억 8천만원이 지원되어 커뮤니티센터와 마을기업 커피숍이 조성되었으며, 마을 내 대중목욕탕을 리모델링 한 커뮤니티센터 〈감내어울터〉는 주민들과 관광객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감내카페〉, 〈감내맛집〉도 많은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후 지속적인 중앙정부의 공모사업과 시비가 지원되어 생활기반시설과 지역특화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예산사업은 사하구청 내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 활동에 따른 대내외적인 관심에서 2011년부터는 부산시에서 지원되는 주택정비 기금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문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욕구에도 적극 부응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감천문화마을의 경우 주민들은 창조적 예술 활동 참여로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고취되었고, 골목길 및 공동화장실 개선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수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젊은 층의 방문객들로 마을의 골목길들이 비좁을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은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거주민들의 불편을 동반하게 되었다.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은, 지역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 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그 지역사회에 소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 외에 일본에서는 낙후지역의 지역개발 수단으로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자원개발을 통해 지역성장을 유도하였으나 무리한 개발 및 투자로 지자체가 재정 파탄을 맞거나 기업체의 부도 등 실패한 사례도 나타난다. 관주도의 대규모 관광사업 투자는 안 된다며 관광객유치보다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실패사례지 관계자의 인터뷰는 현재 도시재생을 위한 창조적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교훈이 될 수 있다.

6. 문화예술의 섬 조성 - 제주에 주는 시사점

감천문화마을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은 지역의 창작스튜디오 아트팩토리인다대포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마을의 경관적 특징을 기반으로 2009년 조형작품이 설치되면서 대내외 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부산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지속사업에 대한 욕구가 형성되었다.

아트팩토리인다대포 운영위원과 주민대표 그리고 해당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마을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마을에서 조금 더 유익한 시간보내기 제공과 주택밀집지역인 관계로 일상생활 공간으로서의 마을주민에 대한 배려를 함께 고민하였다.

단순 시각적 볼거리의 제공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스스로 문화콘텐츠를 보유하며 생성하고 서비스함으로서 문화콘텐츠 생성자인 예술가들과 방문객이 원활하게 융화할 수 있는 창조공간으로서의 마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였다.

소수의 마을 대표로 이루어졌던 마을운영협의회는 마을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로 확대되고 마을의 생활개선사업을 병행해가면서 문화예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감천문화마을의 사례는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제주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주민그룹, 아트팩토리인다대포와 같은 창조그룹, 행정업무와 경제적 지원 등의 행정그룹, 제주를 찾는 국내외 방문자그룹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의 아름다운자연과 생활문화가 살아있는 문화예술 섬은 '생태박물관(Ecomuseum)'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살아있는 문화예술 섬은 주민과 방문객뿐만 아니라 예술가들과 공무원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감동은 비엔날레나 트리엔날레와 같은 이벤트로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스스로 만족하며 만족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섬을 기대한다.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 방안

- 예술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 수 열

시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뙈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 「무엇이 성공인가」(랄프 왈도 에머슨)

1. 제주의 빛을 찾아서

민선 6기 도정은 “자연 · 문화 ·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 슬로건을 정하면서, 도정 철학의 중심에 ‘문화’가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설레는 정책 방향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제주는 천만 관광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물론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한 해 동안에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때,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라.”던 곳이 바로 제주이고, 한때 극형의 유배지였던 곳이 바로 제주인데 지금은 서울의 인구와 맞먹는 사람들이 해마다 제주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제주를 찾는 것일까?

먼저 ‘문화예술’에 대한 언급에 앞서 ‘관광’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觀光’이란 용어가 원래 ‘觀國之光’에서 나왔음을 확인할 때, 國之光을 觀하는 것, 곧 ‘나라의 빛을 보는’ 것이 오늘날 관광의 유래인 셈이다.

그렇다면 ‘제주관광’이라고 했을 때 ‘제주의 빛’은 무엇일까? 도대체 제주의 빛이 무엇이길래 한 해에 천만이 섬을 찾는 것일까?

단언컨대 청정한 자연경관이 그 첫째요, 독특한 문화환경이 그 뒤를 잇지 않을까 한다. 문화는 그 자연의 숨결이 빚어낸 사람들의 삶 그 자체다. 청정한 자연을 화폭과 선율에 담고, 제주다운 독특한 문화를 드러내고 옷을 입히는 것이 다름 아닌 예술이라 할 때, 제주의 예술은 무엇이어야 하고, 제주의 예술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2.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

최근 실리콘벨리를 중심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다. 다시 말해 ‘공유’의 힘, ‘소통’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표현으로 읽힌다. 앞으로 눈앞에 펼쳐질 미래는 탁월한 감각의 한 개인보다 집단지성인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만들

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예술의 기본적인 성격은 (장르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높고 외롭고 쓸쓸한, 어찌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전제는 '제주문화예술의 섬, 제주'라는 단서가 깔려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제주가 문화예술의 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술가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뛰어난 예술가 한 사람이 제주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그만큼 외부 세계에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작가 르 끌레지오가 작품을 쓰면서 살았던 곳이 인도양의 동쪽 끝,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 옆에 아스라이 떠 있는, 제주도보다도 작은 '모리셔스'라는 섬인데, 물론 섬의 청정한 풍광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기도 하겠지만 필자의 경우 그 섬을 찾았던 이유는 온전히 르 끌레지오 때문이었고, 그와 제주와의 인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제주'의 미래 가치를 문화와 예술에서 찾고자 한다면 개별화된 예술 즉 예술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바로 이 지점에 문화예술인들의 집단지성이 요구된다. 외지에서 내려와 제주에 정주하는 예술인이건 제주에서 나고 자란 예술인이건 구분 없이 제주의 미래 가치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제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앞으로는 크루즈선박을 이용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을 볼 때, 그들의 이동 경로를 생각해 보자. 아마도 그들은 김만덕 기념관이 있는 탐라문화관장을 거쳐 동문시장으로 진입하거나 칠성로 혹은 지하상가를 경유하여 탐라 천년의 역사가 지층처럼 쌓여 있는 관덕정 즉 원도심에 이르게 된다. 바로 그 일대의 지역을 문화예술특구로 삼자는 것이다.

물론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중심으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거기에 가면 제주의 문화와 예술을 감상할 수 있고 제주를 상징하는 다양한 아트샵을 만날 수 있고, 제주를 대표하는 먹거리를 만날 수 있다면 원도심은 과거의 역사만 남아 있는 공간이기 이전에 미래의 소중한 자원이 아닐 수 없다.

가까운 예로 통영을 생각해 보자.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통영의 동피랑은 이미 문화예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피랑 언덕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집들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발 대상이었는데 그 마을에 문화예술인들이 정주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은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된다. 벽화를 그려 단장하고, 예술가들이 크고 작은 행사를 기획하여 공연하고, 먹거리 공간을 만들어 내면서 버려진 공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 이제는 동피랑을 보기 위해서 통영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북경의 '따산즈(大山子)798'도 마찬가지다. 한때 중국을 대표하는 공장지대였던 공간이 개혁개방정책으로 말미암아 급속하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되면서 20여 년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공간 중 한 곳이 조소과 창작실이 들어서면서 전환을 가져오기 시작하여 지금은 북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르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한 것이다. 어디 관광객뿐이겠는가? 북경을 방문한 세계적인 지도자 혹은 유명 인사들이 따산즈를 찾고 있다는 보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문화예술 행정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필자에게 주어진 내용이 예술인들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어,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인다면 문화예술행정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예술가 개인이든 예술단체든 문예진흥기금을 받느냐의 여부를 떠나 제주의 문화예술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제 목소리를 내어야할 적극적인 당위가 예술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거니와 문화예술인들의 공유와 소통 그리고 연대의 힘이 제주 문화예술의 미래를 결정짓게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함이다.

예술이 밥이 되지는 않는다. 밥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밥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술이 사라진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다. 한 시대를 함께 했던 다양한 예술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보존되고 전승될 것임을 믿는다.

끝으로 부끄러운 시 한 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어제를
빨아

오늘
넌다

내일은
마를까

– 「빨래」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방안(행정의 역할)

이 중 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Ⅰ. 들어가며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사회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정치가 아니라 문화를 꼽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어떠한 강력한 힘보다 파급효과가 큰 문화, 이 문화의 힘으로 제주 자체를 행복하게 하고 전 세계에 제주를 마케팅할 필요가 있다. 민선6기 도정은 이러한 제주의 문화와 예술이 진정 꽃피울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기는데 열정을 바치고 있다.

과거 제주는 지역의 격절성과 규모의 왜소성으로 문화정책이 경제개발의 보조적 기능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문화를 도정 방침에 정책 의제로 선정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제주도제(1946. 8. 1) 실시 후 반세기가 지나서야 도정의 4대 전략이나 목표에는 '향토문화진흥'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 사업 집행과 예산 순위에서는 언제나 타 분야에 밀려 왔다.

〈제주도정의 문화예술정책 방침〉

- '문화예술의 진흥'(1998년)
- '지역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2001년)
- '특성을 살린 탐라문화예술 진흥'(2004년)
- '독특한 문화예술'(2006년)
- '국제문화교류의 확대'(2010년)
-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2014년)

제도적인 면에서 상위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2조)'에 근거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12~2021)』에 문화예술 발전분야가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1차 향토문화예술 진흥 중·장기계획(2003~2011)』, 『제2차 향토문화예술 진흥 중·장기계획(2013~2022)』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문화의 힘으로 제주도민을 더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과 세계가 행복해지는 힘을 제주에서 보여 주어야 할 때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름다운 산과 바다, 깨끗한 공기와 물, 안전한 먹거리에 있다. 청정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키우고 창의성을 더하는 것이 제주가 나아갈 길이다. 그래서 민선6기 제주도정 목표를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 정하고 제주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역사와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세계와의 문화교류 확대를 통해 제주를 세계 문화와교류하고 융합하는 문화의 체험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제주를 문화중심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제주에 이주한 문화예술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전통문화와 외부의 문화, 제주인과 이주해온 제주인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문화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문화와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잉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활용해서 제주가 새로운 창조적 문화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문화예산 3%"를 선언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문화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예술 예산*을 계속 확대하여 문화에 대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문화예술예산 (2014년) 785억원(2.19%) → (2015년) 1,081억원(2.83%)

그리고 제주시는 문화를 통한 원도심 재생 등 '문화마을'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고, 서귀포시에서도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문화예술 특구라든가 문화예술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내지는 기구의 정비 등도 계획하고 있다. 세잔, 고흐도 머물렀던 예술의 도시로 유명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처럼 이중섭 같은 예술인의 위대한 감각이 서귀포의 스토리를 유산으로 만들고 국경을 넘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도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섬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Ⅱ.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

1. '창의적인 문화 플랫폼' 실현을 위한 논의 시작

365일 새로운 제주, 지붕 없는 미술관, 문화예술의 섬, 창의적인 문화플랫폼 구축 등 제주문화 비전을 구상하고 있다.

올해는 행정·문화예술단체와의 토론, 워크숍,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민간분야 문화예술 정책과제 발굴 및 문화비전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 등 문화 협치를 본격 추진하고 창의적인 문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

- 문화예술의 섬 TF 운영 :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문화자원 연계방안 등
- 문화예술위원회('15. 6월 구성) 등을 중심으로 역동적 에너지와 행정의 조화
- 문화예술 인력 POOL 구성 운영(1,500명) : 문화예술 정책 및 문화자원 연계 방안 등

2. 제주문화 세계화를 위한 제주문화 알리기 박차

제주도는 '14. 6월 UCLG 2014 문화시범도시(총 8개 도시*)에 선정('14.6)되었으며, '15. 3월 스페인 발바오에서 개최된 문화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등 세계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주문화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 제주도의 '지붕 없는 박물관' 계획, 제주의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변공간 조성, 문화 권리 등에 대한 의견 교환(문화정상회의, '15.3)
- 도지사, UCLG ASPAC 회장으로 아태지역 문화분과위원회 설립('15.6) 및 세계

지방정부와의 문화교류(4회)

* 제주(한국), 콘셉시온(칠레), 마야구에스(푸에르토리코), 멕시코시티(멕시코), 보고타(콜롬비아), 바우드로일-도리온(캐나다), 벨로호리존테(브라질), 가브로보(볼가리아)

'15. 10월에 개최되는 제54회 탐라문화제에서 『하이난의 날』, '15. 12월 하이난에서 개최되는 환러제에 『제주의 날』을 운영하고, '16년 6월 개최되는 『ASEM 문화장관회의』 및 『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모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신규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다.

향후, 제주에 산재되어 있는 유적과 자연환경을 결합한 아트페어(미술), 아트마켓(공연) 등을 개최하고, 칠머리영등굿, 제주큰굿 등 기능과 의례 전승 및 전통예술축제로 발전시키는 등 제주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하여 제주지역에 적합한 예술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3. 역사문화공간의 창조적 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구) 제주대병원을 원도심 치유 문화예술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유휴 공간을 활용한 (가칭)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를 조성('15.6～'16.3)하는 등 원도심 문화자산과 연계한 문화복합 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김만덕 객주터 재현사업 완료('15. 4) : 3,560백만원(만덕고가 4동, 객주 4동)
- 서귀포 솔동산 문화의 거리조성사업 완료('15. 2) : 2,370백만원

* 시범운영(파일럿) 프로그램 가동('15. 6), 구 제대병원 부지 내(5,090백만원)

구) 제주대학병원과 한짓골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특구로 지정하고 제주출신 예술인과 이주해온 제주 예술인, 국내외 예술가 등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하여 IT와 융합한 문화 창조경제의 산실이 되도록 하는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예술가들의 활동 공간을 집약화해야 한다.

향후, 지역의 유휴공간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예술인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국내외, 도내 유명 예술인들의 창작 문화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예술인

들이 함께 거주하는 창작문화촌을 조성할 것이다.

4. 문화행사의 활성화 · 운영 효율화

'15년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공모로 추진(234개 사업 2,652백만원)하여 문화예술분야 민간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지정문화재 104건에서 106건, 도지정문화재 271건에서 272건, 향토유산 지정 24건에서 27건 등 문화재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 개최되는 제54회 탐라문화제, 20주년 기념 국제관악제(해외 12개팀·국내 24개팀·2,000명)를 글로벌 대표축제로 육성하여 제주문화 국제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제주 원도심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보존·전승하고, 방문객을 유인하여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원도심 축제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을 문화 환경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제10회 제주포럼에 『문화세션』을 신설하여 제주를 사랑하는 예술인들 모임과 World Culture Open(월드컬처오픈) 등과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국제문화교류의 장 조성, 지역과 인류발전을 위한 문화사업 발굴, 창조적 문화 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한 『제주문화선언문』 발표,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도내·외 문화 및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 토론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매년 정례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5.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디지털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콘텐츠는 문화산업의 원석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은 무궁한 확장 가능성을 지닌 미래전략산업이다. 제주의 신화와 역사 문화자원들에 대한 연구와 산업화를 적극 지원 할 것이다.

1천2백만 관광객시대에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거나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만족할 만한 공연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한류, K-Pop 등을 제주관광과 접목시키는 노력도 할 것이다.

제주 전통문화 발굴 및 계승, 칠머리당 영등굿, 설화, 제주해녀, 4·3 등을 소

재로 한제주 문화원형을 보존하면서 창의적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표출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도 육성해야 한다.

6.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역 문화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5월말)에 우리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응모하여 선정되었다.

※ 2015년 양성기관운영 종료 후에는 도 자체 지원 교육 지속 추진 : 2016년도

〈 선 정 개 요 〉

- (신　　청) 전국 20개기관 신청
- (심사결과)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5개기관 선정
  * 제주문화예술재단(서울재단 컨소시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전북대학교, 광주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 (교육대상) (예비)예술가 및 문화기획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 사회적 예술가 되기 : 문화관련 (예비) 예술가 및 문화기획자 30명
  - 문화적 도시기획가로 거듭나기 :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 신입직원 및 공무원 30명
- 추진방법
  - 제주문화예술재단(제주대학교) + 서울문화재단(서울시립대학교) 컴소시엄 추진
- (운영예산) 120백만원(국비 90, 제주재단 15, 서울재단 15)

문화예술 분야 인적자원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젊은 예술가, 청년예술가의 양성은 필연적이다. 지역 문화발전은 청년예술가의 활동성이 중요한 요인이므로 청년예술가의 창의적, 실험적 작품 활동에 대한 신진 예술가 지원(문화예술재단), 예술강사 인력 풀 구축, 창작 공간 임차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지역성을 소재로 한 창작활동 지원, 복합장르 실험예술 대중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지역대학 문화예술관련 학과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대부분 기초 창작 예술활동에

집중하고 있고 문화행정(기획), 예술경영 분야의 인력은 전혀 배출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과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연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예술가의 창작 활성화 및 예술교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주민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및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창작-소통-향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7. 제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주어·제주학 육성

제주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 생활화하고 제주인의 유·무형 문화를 연구·분석하여 제주학을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주문화 원형이 담긴 제주어 보전을 위한 구술 채록사업, 제주어 살리기 특성화 교육, 제주어 확산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및 언론 특집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제주어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논의 방향

문 순 덕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

인간에게 문화예술은 어떤 의미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개인적 경험에 따라 다를 것이고, 정책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개인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할 때 참여자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다. 사람들은 문화예술 향유자로서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기회가 많을 것이며, 이때 가능하면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의 선택 폭이 넓기를 기대한다. 또한 자신들이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주변에 있거나, 찾아가기 쉬워야 한다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시간, 비용 등의 결핍이 없기를 바란다.

반면 문화예술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예술 장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주로 창작활동을 하는데 공간적, 시간적, 경제적 제약을 덜 받기를 원할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만족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문화예술 향유자와 창작자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문화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누구나 어느 곳에서 살든지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지역이나 계층은 물론 연령에 상관없이 문화예술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문화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정책

과는 별도로 제주도를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데 문화예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민선6기 제주도정의 중요 과제이다.

따라서 오늘 발표는 '제주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등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논의 대상

1) 목표 설정

제주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든다면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임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관광, 자연경관 등에 추가하여 감성적인 지역이라는 이미지화가 가능한 제주도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들어와서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는 '국제자유도시, 세계 평화의 섬'이 있다.

▢ 국제자유도시

제주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다른 지방과 차별되는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국제자유도시는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가리킨다.[1)]

▢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는 2005년 1월 27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으며(노무현 대통령이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를 참조하였다.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 서명), 2015년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10년간 제주도는 국내·외에 '신평화지역'으로 각인되었고, 이것이 제주도의 브랜드가 되었다.

▢ 문화예술의 섬

제주도의 대표 브랜드로 알려진 '국제자유도시와 세계 평화의 섬'이 우리들의 정서적인 삶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2014년 민선 6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제주를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지향점

제주도는 최소한 국내인들에게는 '국제자유도시, 세계평화의 섬'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 여기에 감성적 요인을 접목하여 '문화예술의 섬'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자유도시(경제적 측면)+세계 평화의 섬(사회·정치적 측면)"에 문화예술의 섬(문화콘텐츠, 예술적인 측면)을 추가하여 제주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가 목적이고 지향점이 될 수 있다.

3. 조성 방향 설정

제주 문화예술의 섬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향과 과제, 주요 내용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조성 주체와 재원 조달 방법 등 현실적인 과제가 놓여 있다.

문화예술의 섬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문화예술'만을 대상으로 하면 어렵고, 제주의 자연자원과 인문자원 등 전통문화도 활용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1) 방향

우선 조성 방향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관광자원을 문화예술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관광지로 알려지고, 관광 상품(생태, 자연 포함) 개발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문화예술을 생활화하고, 상품화할 것인가이다. 이때 문화는 지역문화와 외부 유입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제주의 문화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이다. 이 부분은 지금도 제주도정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관광자원이든 문화예술자원이든 지역 간에 쏠림 현상이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의 섬을 조성하게 된다면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하여 강제 조항을 두어야 한다.

2) 방법

조성 방법에는 하드웨어(시설)와 소프트웨어(콘텐츠)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내용을 담는다고 하면 먼저 시설을 떠올린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의 섬은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설을 조사하고, 재배치한다. 그리고 주요 내용에 따라 최소한의 시설만을 설치한다.

3) 과제

접근 방법에 따라 과제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거시적 관점은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거창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미시적 관점으로는 문화예술을 사소하게 여기고 일상생활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운영 방법이다. 문화예술 후원제도 도입 및 활성화, 문화예술 자원봉사 제도 활성화, 예술제(축제) 개최, 예술인 창작 활성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이 있다. 이외에도 제주도정의 각종 정책 추진과 마을 만들기 사업에 문화예술이 반드시 포함되게 정책화한다.

4. 사회구성원들의 역할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을 마련하는데 인위적인 조성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예술의 섬 '조성 기준, 방향, 주요 콘텐츠, 최종 목표' 등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현재 추진 중인 문화예술 관련 사업(원도심 재생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등)과 마을 만들기 사업 등도 이 계획안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조성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도민과 예술가의 입장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이때 도내의 예술인을 중심으로 하되, 국내외 예술인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 예술인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최근에 제주에 와서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과 협력이 필요하므로 모든 예술인들이 제주라는 거대한 예술시장에서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공동의 장소를 마련해 준다.

말하자면 개인과 지역의 구분을 배제하고, 오로지 문화예술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제주도에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문화예술의 섬 조성이라고 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술인들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예술인들만의 고유분야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문화적인 요소가 스며들게,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향유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대하고, 창작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예술적인 욕망을 어떻게 분출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 것인가가 이 이 사업의 핵심이 될 수 있다.

5. 문화예술의 섬 조성 효과

제주도는 자연 경관과 풍광이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이런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기운이 묻어나게 만드는 것이 문화예술의 섬 조성의 지향점이 될 수 있다.

제주도를 자연과 평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가꾸는데 문화예술을 선택한다. 크게 보면 제주의 '자연, 평화,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자연은 이미 세계적인 인증을 받았고, 평화는 2005년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출발하였다고 본다.

여기에 '사람 사는 이야기'를 융합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사람이나 지역이 '갈등과 분노'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문화예술이 하는 것이고, 제주도가 장소로 정해지면 된다.

결국 제주도가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된다면 무엇보다도 제주도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고, 제주 방문객(관광객 포함)들도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사람은 도민과 예술인들이다.

〈제주포럼 문화선언문 (2015. 5. 22. 제10회 제주포럼)〉

사람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멋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타인과 더불어 누리는 삶을 추구합니다.

(중략)

문화에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인간의 무한한 창의성이 담겨 있고,
문화에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바라는 따뜻함과 지혜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중략)

그러한 노력에 겸손히 동참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월드컬처오픈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합니다.

하나, 다채로운 문화가 전시되고 어울리는 열린 교류의 장을 펼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하나, 지역과 인류 발전에 이바지한 문화적 노력들을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하나, 세계 지역 간 문화정책과 실천방안을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화플랫폼을 구축합니다.

JDI 제주미래포럼 개최 경과

제1회 제주미래포럼

「정부의 미래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 일시 : 2008년 6월 20일(금) 15 : 00~18 : 10

○ 장소 :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5층(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기조강연**

- 정부의 미래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 **현인택** 청와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고려대 교수

□ **주제발표**

- 미래비전수립의 필요성
  - **이홍재** 국가미래예측정책연구원, 안양대 교수
- 제주의 미래비전과 전략
  -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제2회 제주미래포럼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제주관광」

○ 일시 : 2008년 8월 19일(화) 15 : 00~17 : 30

○ 장소 :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5층(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주제발표**

- 신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
  -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과 제주관광의 대응전략
  - **김철원** 경희대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제3회 제주미래포럼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주요 경제 분야 대응방안」

○ 일시 : 2008. 12. 19(금) 15 : 0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4층)

□ **기조강연**

• 정부의 경제정책과 제주의 대응 전략

- **박청원**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단장

□ **주제발표**

•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좌장 : **이상봉** 제주대 경상대학장

발표 : **고성규** JDC투자사업본부장

•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좌장 : **박상수** 제주관광대 교수

발표 : **오상훈** 제주대 교수

• 1차산업 발전 방안

좌장 : **송창길** 제주대 교수

발표 : **고성보** 제주대 교수

제4회 제주미래포럼

「제주의 녹색성장 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 일시 : 2009년 4월 23일(목) 14 : 00~18 : 00

○ 장소 : 제주그랜드호텔

□ **주제발표**

•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정책 전략

- **최영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녹색성장과 산업

-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

• 녹색성장과 제주의 에너지정책

- **주복원**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장

• 녹색성장과 제주의 1차 산업

- **고성보** 제주대학교 교수

• 기후변화와 국토 및 도시정책

- **김명수** 왕광익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기후변화와 제주의 관광정책

- **김의근** 탐라대학교 교수

• 기후변화에 대응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

-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 기후변화에 대응한 제주지역 1차년도 연구성과

- **이병걸** 제주대학교 교수

제5회 제주미래포럼

「제주지역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 일시 : 2009년 12월 1일(화) 13 : 30~18 : 0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

□ 주제발표

• 제주도 도로여건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방안

-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주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현황 및 효과

- **이상수**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안전조사팀장

• 제주지역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사고감소 방안

- **안병준** (전)동국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제6회 제주미래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과제」

○ 일시 : 2010년 10월 12일(화) 15 : 00～18 : 2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

□ **기조강연**

-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 **주제발표**

- 수출 1조원 시대를 위한 정책적 구상
  - **이용완**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제주지역 수산분야 수출 활성화 전략
  - **고봉현**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식품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 방안
  - **김기옥**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센터 실장

제7회 제주미래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용암해수 산업화 성공전략과 과제」

○ 일시 : 2011년 2월 22일(화) 15 : 00～18 : 0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

□ **주제발표**

- 용암해수 특성과 시장경쟁력
  - **김현원** 연세대학교 교수
- 용암해수사업 추진상황과 성공전략
  - **김병호** 제주테크노파크 박사
- 용암해수 사업 성공을 위한 추진체제
  - **고철수**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제8회 제주미래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성공전략과 과제」

○ 일시 : 2011년 5월 12일(목) 15 : 00~18 : 0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

☐ **주제발표**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육성전략
  - **황수성**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
- 제주지역 해상풍력발전 추진전망과 과제
  - **김일환** 제주대학교 교수
- 제주지역 태양광에너지 산업화와 과제
  - **유권종** 한국에너지연구원 태양광센터장

제9회 제주미래포럼

「중국시장 변화에 따른 제주의 대응전략」

○ 일시 : 2011년 9월 6일(화) 15 : 0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 **주제발표**

- 중국과의 관광교류 및 관광객 유치 전략
  -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
-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와 틈새시장 탐색
  - **이봉걸** 국제무역연구원 박사

제10회 제주미래포럼

「제주다운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

○ 일시 : 2011년 9월 30일(금) 15 : 0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4층

□ **주제발표**

- 제주 도시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건축물 고도규제를 중심으로
  -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제주지역 고도 및 녹지지역 관리방안
  -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제11회 제주미래포럼

「관광객 800만시대의 제주관광이 나아갈 길은?」

○ 일시 : 2011년 11월 25일(금) 15 : 00~18 : 0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

□ **주제발표**

- 제주 MICE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과제
  - **김명현** 한국은행제주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 중국인 개별관광객 유치증진을 위한 제주관광의 과제
  - **정승훈**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주지역 생태관광 육성 전략
  - **엄상근**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제12회 제주미래포럼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사회의 대응전략(Ⅰ);
100세 시대 도래와 제주의 산업·경제분야 변화」

○ 일시 : 2012년 4월 12일(목) 15 : 00~18 : 0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

□ **주제발표**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대응전략
  - **이견직**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100세 시대 도래와 제주의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 **진관훈** 제주테크노파크 경영기획부 박사

제13회 제주미래포럼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사회의 대응전략(Ⅱ);
100세 시대 도래와 제주의 고용·교육분야 변화」

○ 일시 : 2012년 5월 30일(수) 15 : 00~18 : 00

○ 장소 : 제주발전연구원 중회의실

□ **주제발표**

- 100세 시대 도래와 제주 노인고용의 대응전략과 과제
  - **고승한**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장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교육의 방향과 과제
  - **김기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실 박사

제14회 제주미래포럼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사회의 대응전략(Ⅲ); 100세 시대 도래와 제주의 가족·건강분야 변화」

○ 일시 : 2012년 9월 26일(수) 15 : 00~18 : 00

○ 장소 : 제주발전연구원 중회의실

□ **주제발표**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 가족구조의 변화와 향후 가족정책과제
  - **김혜숙**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과 교수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노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방안
  -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제15회 제주미래포럼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사회의 대응전략(Ⅳ); 100세 시대 도래와 제주의 여가·문화분야 변화」

○ 일시 : 2012년 10월 30일(화) 15 : 00~18 : 00

○ 장소 : 제주발전연구원 중회의실

□ **주제발표**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여가·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 **최석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지역의 여가·문화활동 활성화 정책
  - **김화자** 제주문화예술재단 연구사

제16회 제주미래포럼

새정부 정책방향과 제주의 대응전략

○ 일시 : 2013년 1월 18일(금) 10 : 00~18 : 30

○ 장소 :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5층(제주상공회의소)

□ **기조강연**

-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
  - **박광국** 한국행정학회 회장

□ **주제발표**

- 새정부에서의 지식기반집적지 제주 전략
  -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새정부 산업정책방향과 제주의 대응과제
  - **송우경**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새정부의 사회복지·여성분야 정책과 과제
  -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제주지역 핵심 공약 반영을 위한 전략과 과제
  - **강철준**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제17회 제주미래포럼

세계환경수도를 위한 전략과 과제

○ 일시 : 2013년 3월 28일(목) 15 : 00~18 : 00

○ 장소 : 제주발전연구원 중회의실

□ **주제발표**

- 세계환경수도 추진 전략
  - **강진영**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선진국의 우수 환경도시조성 전략과 시사점
  - **변병설** 인하대학교 교수
- 꾸리지바 사례를 통해 본 제주 세계환경수도 전략
  -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제18회 제주미래포럼

제주지역 슈퍼태풍의 접근 가능성과 대응방안 모색

○ 일시 : 2013년 12월 4일(수), 13:30~17:00

○ 장소 : 한라도서관 시청각실(지하1층)

☐ **주제발표**

- 제주지역 슈퍼태풍의 접근 가능성과 대응
  - **문일주** 교수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 국가태풍센터의 초강력 태풍에 대한 전망과 대응
  - **이종호** 센터장 (국가태풍센터)

제19회 제주미래포럼

도민 100만 시대, 제주 도시정책 방향

○ 일시 : 2014년 4월 9일(수) 15:00~17:3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

☐ **기조발표**

- 국토도시정책의 여건 변화와 과제
  - **황 희 연** (충북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제주지역 미래전략 무엇을 담을 것인가?
  - **이 성 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제20회 제주미래포럼

노인 주거복지 정책 방향과 과제

○ 일시 : 2014년 6월 20일(금) 15:00 ~ 18:00

○ 장소 : 제주그랜드호텔 (2층 크리스탈홀)

☐ **기조강연**

- 한국과 미국의 주거복지
  - **황 은 주**(미국 버지니아텍 주립대학교 주거복지학과 교수)

☐ **주제발표**

- 세션 1 :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 **Julia Beamish** (미국 버지니아텍 주립대학교 주거자원경영학과장)

- 세션 2 : 노인 주거복지와 커뮤니티의 역할
  - **Nancy Brossoie** (미국 버지니아텍 주립대학교 노인연구소 선임연구원)

제21회 제주미래포럼

고용 없는 성장 시대 - 직업능력개발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 일시 : 2014. 10. 1(수) 15:00~18:00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 **주제발표**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현황과 향후 과제
  - **고 혜 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부산지역 직업능력개발 사례와 교훈
  - **서 옥 순**(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제주지역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 **고 승 한**(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제22회 제주미래포럼

도민이 참여하는 제주 미래비전 수립

○ 일시 : 2015년 3월 20일(금) 13시 30분~16시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

□ **주제발표**

- "시민참여형"2030서울플랜 미래상 수립과정의 경험과 과제
  - **김 인 희** (서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의 시작 「수원시 시민계획단」
  - **김 도 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부장)

- 제주 미래비전계획의 도민계획단 운영방안
  - **김 태 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MEMO

MEMO